

전체 인민의 경의와 추억속에
영생은 시작될것이다



아름다운 생애의
지켜야 할 명예를 놓으리
가결한 전투포화를 헤쳐간
분들의 용감성과 그 위훈
이 나라 영웅성의 상징으로
영원히 세기나서
그대를 빛과 기쁨으로
조국의 영광 불멸화

조선



2026 5

(842)



1956년 4월
화보 《조선》 창간

차 례

특별소식

- 2 Ⅱ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준공식 송엄히 거행
- 18 Ⅱ 해외군사작전 참전렬사들을 위한 추모음악회 《조국의 별들》 진행
- 22 Ⅱ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련방 국가회의 의장을 접견하시였다
- 23 Ⅱ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련방 국방상을 접견하시였다
- 24 Ⅱ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준공식에 참가한 로씨야련방 공식대표단을 환영하는 만찬회 진행
- 28 Ⅱ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각급 특수작전 구분대들의 훈련실래를 료해하시였다
- 32 Ⅱ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국방과학원 장갑무기연구소에서 조직한 시험을 참관하시였다
- 34 Ⅱ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대출력탄소섬유고체발동기 지상분출시험을 참관하시였다
- 36 Ⅱ 구축함 《최현》호에서 무기체계시험들이 진행
- 40 Ⅱ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포병구분대들사이의 포사격경기 진행
- 42 Ⅱ 미사일총국 전술탄도미사일시험발사 진행
- 46 Ⅱ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혁명군창건일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서부지구 기계화보병사단관하 연합부대를 축하방문하시였다
- 50 Ⅱ 뜻깊은 4.25명절에 즈음한 각급 대연합부대관하 박격포병들사이의 사격경기 진행
- 52 Ⅱ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국방성중앙군악단창립 80돛기념 연주회를 관람하시였다
- 54 Ⅱ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장 왕의 동지를 접견하시였다

소식

- 56 Ⅱ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14돛을 온 나라가 성대히 경축
- 60 Ⅱ 위인칭송의 노래, 친선단결의 노래
- 62 Ⅱ 조로 두 나라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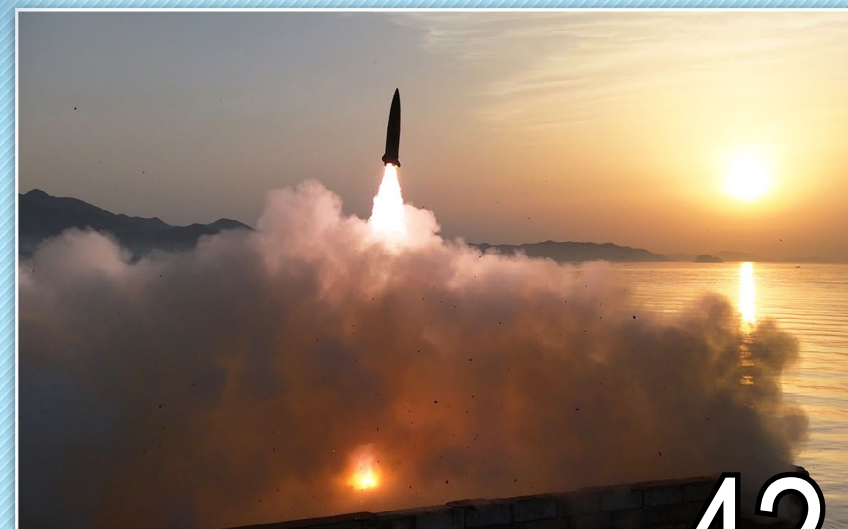
오늘의 조선

- 64 Ⅱ 사회주의농촌에 더 많은 비료를
- 68 Ⅱ 증산의 동음 울리는 천리마리일공장
- 72 Ⅱ 서북변의 농장도시 신의주온실종합농장
- 78 Ⅱ 나라의 산림과학연구거점
- 82 Ⅱ 새 거리의 자랑많은 유치원

표지: 조선인민군 특수군사작전참전렬사탑
뒤표지: 새별거리의 저녁
편집: 변일진, 김규성, 조령, 조효성, 리금주



2



42



56



72



82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준공식 숭엄히 거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신성한 권위와 존엄을 지켜 열렬한 애국충심으로 역사에 전무한 기적적인 승전신화를 창조한 조선인민군 해외군사작전 참전용사들의 위대한 영웅 정신을 칭송하는 전투위훈 기념관이 수도의 명당자리에 훌륭히 건립되었다.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준공식이 로씨야련방 푸르스크해방작전종결 1돐에 즈음하여 4월 26일 숭엄히 거행되었다.

준공식장에는 조국의 명령에 끝없이 충실하고 위대한 우리 국가의 존엄과 명예를 위해 들도 없는 목숨을 서슴없이 바쳐싸운 참전용사들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경건한 추억이 뜨겁게 흐르고있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준공식에 참석하시였다.

조용원동지, 조춘룡동지, 노광철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 군부의 지도간부들,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장들, 해외작전부대, 공병부대 장병들과 련사유가족들, 성, 중앙기관 책임일군들, 기념관건설에 공헌한 군인건설자들과 창작가들, 혁명학원 원아들, 청년학생들, 수도시민들이 참가하였다.

로씨야련방 국가회의 의장 바체슬라브 월로진동지, 국방상 안드레이 벨로우소브동지를 비롯한 로씨야련방 공식대표단, 우리 나라 주재 로씨야련방대사관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준공식장에 도착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우리 군대를 세계에 유일무이한 정치사상강군, 싸우면 반드시 이기고야마는 무적필승의 혁명강군으로 키워주시고 가장 숭고한 사랑과 의리의 경륜으로 영웅전사들의 삶을 값높은 영생으로 이어주시는 희세의 천출명장, 위대한신 아버지를 우리리 걱정의 환호를 더쳐올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준공식에



참가한 해외작전부대 리더단장, 대대장들을 만나주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능숙한 전투지휘로 조선인민군의 특출한 전투정신과 용감성을 남김없이 과시하고 우리 국가의 강대함과 신성한 권위를 명예의 단상에 거연히 떠올리는데 공헌한 해외작전부대의 전체 지휘관들에게 뜨거운 전투적 격려를 보내시었다.

가렬한 전투포화를 앞장에서 헤쳐온 미더운 지휘관들을 한사람한사람 포용해주시며 육친의 뜨거운 정과 열을 부여 주시는 김정은동지를 우리러 준공식참가자들은 열렬한

박수갈채를 터쳐올리었다.

로씨야연방 국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주악 되었다.

김정은동지께서 준공을 기념하여 뜻깊은 연설을 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군대 전체 장병들의 소원, 온 나라 인민들의 간절한 숙망과 지성우에서 태어난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준공의식을 가지게 된 감개함을 피력 하시면서 당과 정부를 대표하여 기념관건설에 아낌없는 노력과 지혜를 바친 각급 건설부대 관병들과 관여기관 일군들,

창작가들에게 충심으로부터의 감사를 표시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정의의 리념에 충실한 조로 두 나라 군대가 평화와 주권을 위하여 어깨를 견고 한전호에서 싸운 꾸르스크해방작전의 전략적의의와 전투적우애의 본보기를 창조하는 혈전혈투의 행로에서 조선인민의 우수한 아들들이 발휘한 무비의 용감성과 대중적영웅주의, 불굴의 전투정신과 고결한 희생에 대하여 언급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군대의 해외군사작전은 당과 조국의 명령앞에 스스로의 량심과 도덕적권리로 나선 군인들,

티없는 충실성의 열화로 심장을 뚫고 그 무한의 생명력으로 극한점들을 넘어선 가장 진실하고 아름다운 인간들이 벌린 력사에 전무한것이었다고 평가하시면서 오늘의 준공식은 우리 국가의 존엄과 명성에 절대적 불변성을 부여해준 의식으로 청사의 한페이지에 기록될것이라고 언명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성스러운 사명감과 강인성으로 써나가는 수호의 전기들과 더불어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은 누리에 빛날것이며 그 찬연한 빛발속에 렬사들은 영생할것 이라고 확언하시면서 위대한 군인들의 고귀한 삶이 무궁토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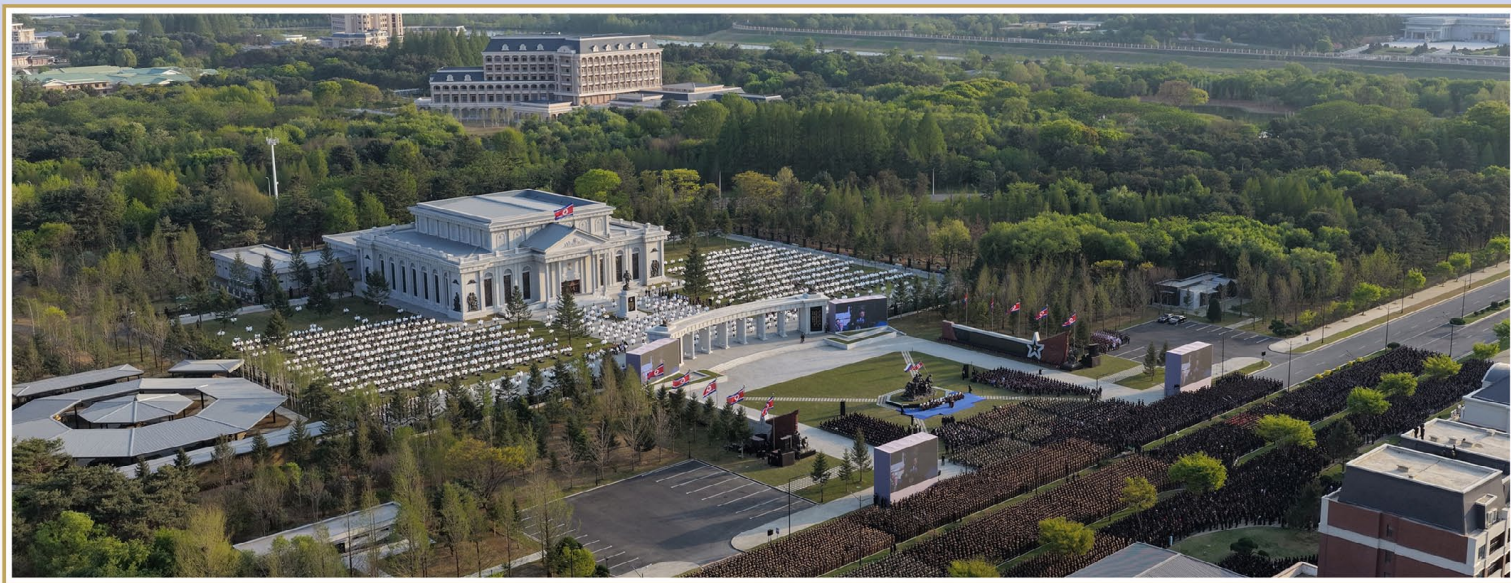


빛나기를 중심으로 기원하시며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 기념관의 준공을 선포하시였다.

정의로운 성전에 한몸 바친 련사들의 모습과 이름을 불후의 기념비에 금문자로 새겨 값높이 빛내여주시는 은혜로운 그 품이 있어 그들이 떨친 승고한 정신과 기개는 대대손손의

정의속에 불멸하리라는것을 전체 참가자들은 크나큰 격정속에 새겨안았다.

이어 로씨야련방 국가회의 의장 바체슬라브 월로진동지가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준공식참가자들에게 보내여온 로씨야련방 대통령 올라지미르 올라지미로비치 뿌쎌동지의



편지를 낭독하였다.

편지에서 뿌쎌대통령동지는 꾸르스크해방 1돐에 즈음하여 평양에서 준공하는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의 준공을 축하하며 조선인민군 장병들이 로씨야의 전우들과 어깨걸고 싸우면서 특출한 용감성과 진정한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불멸의 영광을 떨친 무비의 위훈은 모든 로씨야공민들의



심장속에 영원히 남아있을것이라고 하면서 꾸르스크해방 작전참전자들과 희생된 영웅들에게 진심으로 되는 감사와 승고한 경의를 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상 노광철동지, 로씨야련방 국방상 안드레이 벨로우소브동지가 준공테프를 끊었다.

조선인민의 우수한 아들들의 영웅적인 희생과 위대한







공적에 드리는 숭고한 경의를 담아 추모의 흰풍선들이 무수히 날아올랐다.

해외군사작전 참전렬사들의 유해를 안치하는 의식이 엄숙히 거행되었다.

국방상 노광철동지는 정녕 보내고 싶지 않고 잃을 수는 더욱 없었던 귀중한 우리 군관, 병사들이 것처럼 그리워 했고 마지막순간에도 돌아와 안기고 싶어했던 조국의 대지가 이제 그들을 따뜻이 품어안게 된다고 하면서 불멸할 위훈과 함께 남긴 고귀한 념원들과 믿음은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지와 줄기찬 투쟁으로써 길이 지켜질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조국의 부름에 한몸 주저없이 내댈 참다운 애국자, 용감한 열혈의 혁명전사들을 다시 일으켜세우지 못하시는 야속함과 상실의 아픔을 누르시며 김선철렬사의 유해에 흠을 엮으시었다.

조선인민의 위대한 아들들의 명복을 바라며, 가장 참된 군인, 가장 참된 인간들의 영생을 기원하며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려사들의 유해에 흠을 덮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조국의 존엄과 명예를 걸고 고귀한 생을 아낌없이 바친 참전용사들의 영웅적최후를 경건히 회억하시었다.

《조국에 대한 노래》의 선율이 울리는 속에 충성의 별무리를 품어안은 운명의 하늘이 되어 돌아오지 못한 려사들에게 영원한 생의 박동을 안겨주고 그들이 남기고 간 혈육들의 운명과 미래까지 다 말아안아 보살펴주는 위대한 아버지의 숭고한 사랑과 의리의 세계를 전하는 려사의 순간순간이 뜨겁게 흘러갔다.

온 나라의 존경과 축복속에 려사유가족들이 행복한 생활을 시작한 보금자리결에 세월의 이기에 덮일수 없는 영웅들의 넋과 숨결이 살아있는 영생의 집을 세워주시고도 그 어떤 대가나 보수도 바람이 없이 오로지 조국의 번영만을 축원하며 생을 마친 푸른 젊음을 두고 애석함을 금치 못하시는 김정은동지를 우러르며 유가족들은 걱정의 눈물을 흘리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사랑하는 자식들과 남편들의 고결한 삶과 빛나는 최후를 장하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간주하며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잃은 슬픔을 곳곳이 이겨내고있는



유가족들에게 다시금 송엄한 경의를 드리시었다.

조선인민군 군인이라면 당과 조국을 위하여 어떤 생을 살아야 하며 조국앞에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를 애국적장거로써 보여주고 영웅조선의 필승불패성을 더 높은 경지로 승화시킨 참전용사들에게 드리는 송고한 경의심을 담아 조총이 발사되었다.

김정은동지의 명의로 된 화환이 조선인민군 특수군사작전 참전렬사탑에 진정되었다.

로씨야련방 국가회의 의장과 국방상의 명의로 화환이 진정

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조선인민군 육, 해, 공군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되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정의와 존엄, 평화수호를 위한 성전에 참가하여 조국과 혁명, 후손만대에 영원불멸할 위대한 승리의 새 력사, 백절불굴의 영웅전을 창조한 조선인민의 장한

아들들인 참전렬사들을 추모하여 목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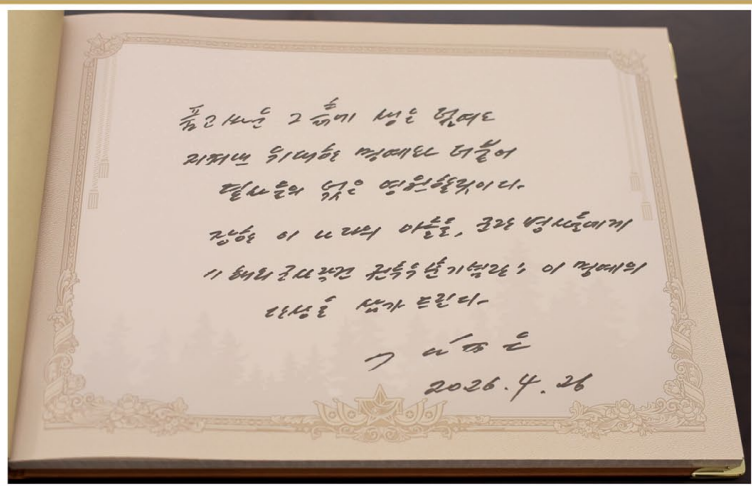
김정은동지께서는 로씨야련방 공식대표단 주요성원들, 당과 정부, 군부의 지도간부들과 함께 해외군사작전 전투 위훈기념관을 돌아보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특유의 당과 조국에 대한 충성심과 열혈의 애국심, 대중적영웅주의로 강자의 위대한 명함과 승리자의 영광을 떨친 참전렬사들이 영생의 별로 빛나고있는 추모벽에 꽃송이를 진정하시고 송고한 경의를 표하시었다.

로씨야련방 공식대표단 성원들, 당과 정부, 군부의 지도간부들, 련사유가족들을 비롯한 준공식참가자들이 드리는 꽃송이들이 추모벽에 진정되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공화국의 모든 세대들이 영원히 간직하고 이어가야 할 조국의 명령에 대한 무한한 충성과 열렬한 애국정신, 강자의 명예를 지켜 죽음도 영광으로 맞이한 불굴의 기개를 보여주는 사진자료들과 전시물들을 깊은 감회속에 돌아보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유해안치실들을 찾으시어 련사들의



령전에 꽃송이를 진정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군대오의 전열에 믿음직하게 서있던 릉름한 그 모습들을 다시는 볼수 없지만 조국의 존귀한 명예의 수호자들인 련사들의 넋과 정신은 영원히 조선인민의 영웅성의 상징으로, 우리 군대의 강대성의 기치로 나뉠것이며 자주와 정의를 위한 공동의 위업을 위해

투쟁하는 조로 두 나라 인민의 승리적전진을 힘있게 격려하게 될것이라고 확인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방문록실에 들리시어 《품고 싸운 그 흠에 생은 덮여도 지켜낸 위대한 명예와 더불어 련사들의 넋은 영원할것이다

장한 이 나라의 아들들, 군관 병사들에게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이 명예의 단상을 삼가 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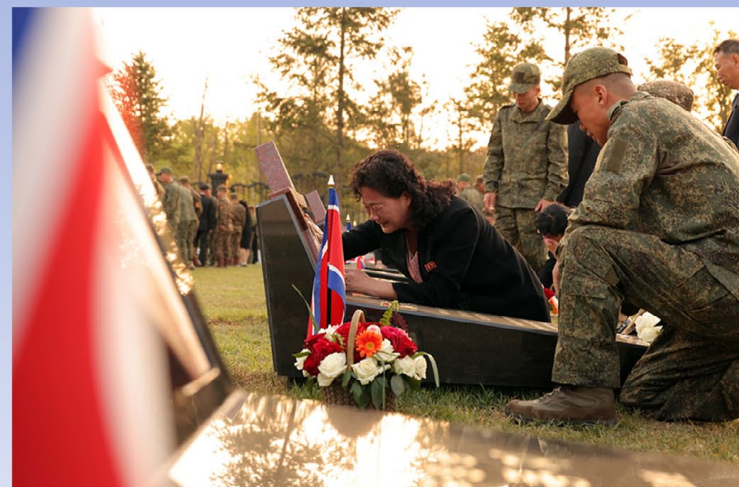
김 정 은

2026. 4. 26》이라는 친필을 남기시였다.

로씨야련방 국가회의 의장 바체슬라브 월로진동지와 국방상 안드레이 벨로우쑈브동지가 방문록에 글을 남기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투위훈기념관 로획무기전시장을

돌아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값비싼 선혈로 형제적인민의 존엄과 안녕을 보위하고 조로 두 나라사이의 전투적우의와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동맹관계, 형제관계의 굳건함을 검증하였으며 후세도록 경의를 받을 우리 세대의 존엄과 명예, 공지와 영광을 떠올린 참전렬사들의 영생을 기원하는 전투위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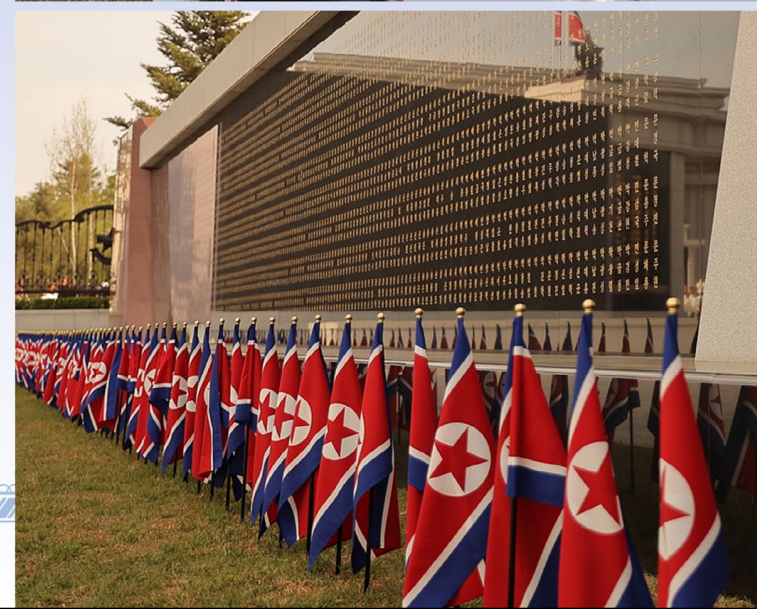


기념관이 주체조선의 국보관으로, 정의와 평화를 지향하는 두 나라 인민의 강렬한 의지와 힘을 체현한 위대한 동맹의 기념비로 길이 빛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조국의 명령을 받들고 돌격해간 영웅들의 위훈에 찬 행적이 어려오고 최후의 시각에 남기고 간 아름다운 생의 메아리가 뜨겁게 울려오는 애국주의교양의 전당을 돌아보며 전체 참가자들은 련사들의 숭고한 념과 포부를 한시도 잊지 않고

그들이 그토록 념원한 부흥강대한 나라, 천하제일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우고야말 철석의 의지를 굳게 가다듬었다.

조선인민의 위대함을 상징하며 공화국의 가장 영웅적인 시대, 김정은시대를 증견하는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 기념관과 더불어 참전렬사들의 불갈은 념은 억년토록 강대할 우리 국가의 존위와 무궁번영속에 영원불멸할것이다.



해외군사작전 참전렬사들을 위한 추모음악회 《조국의 별들》 진행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훌륭한 아들들이 참전렬사들을 위한 추모음악회 《조국의 별들》이 4월 26일 저녁 위대한 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일떠선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야외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 김정은동지께서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지도간부들, 해외작전부대 장병들과 려사유가족들을 비롯한 준공식참가자들과 함께 추모음악회에 참석하시었다.

로씨야연방 국가회의 의장 바체슬라브 월로진동지와 국방상 안드레이 벨로우소브동지를 비롯한 로씨야연방 공식대표단, 우리 나라 주재 로씨야연방대사관 성원들이 자리를 같이하였다.

관현악 《새별》과 설화시 《불멸》로 시작된 음악회 무대에는 해외군사작전 참전용사들에 대한 열렬한 존경과 경건한 회억으로 충만된 송가들과 애국주의주제의 명곡들이 울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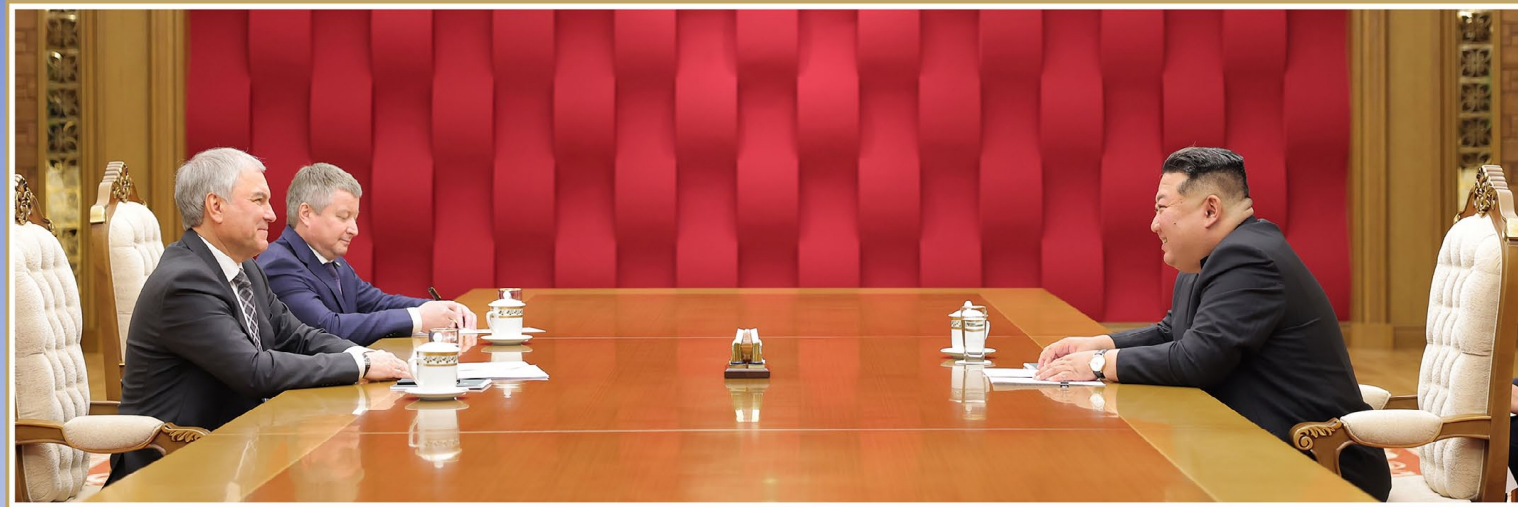
공연무대에는 로씨야명곡도 울랐다. 추모음악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와 로씨야연방 국가로 끝났다.

조선인민군 공군비행편대들이 조국의 존귀한 명예의 대표자들에게 드리는 경의를 담은 불꽃탄을 뿜으며 새별거리 상공을 통과하였다.

조선의 절대적 힘을 체현하고 조선인민의 강대함과 정의로움을 상징하며 어머니조국의 존엄과 명예를 결사 수호한 위대한 영웅전사들의 열혈의 박동과 정신이 후세도록 우리 국가와 군대와 인민의 숨결로 영원하기를 기원한 추모음악회는 깊은 여운을 남기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연방 국가회의 의장을 접견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4월 26일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준공식에 참가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로씨야연방 국가회의 의장 바체슬라브 월로진동지를 접견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로씨야연방 공식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시면서 뽀찐대통령 동지가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준공식에 바체슬라브 월로진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한것은 조로 두 나라사이의 동맹관계를 중시하고 공고발전시켜나가려는 로씨야 지도부의 립장과 의지의 표시로 된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연방 국방상을 접견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4월 26일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준공식에 참가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한 로씨야연방 국방상 안드레이 벨로우소브동지를 접견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앞으로도 국가주권과 령토완정, 안전리익을 수호하려는 로씨야연방의 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할것이라고 하시면서 로씨야군대와 인민이 정의로운 성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준공식에 참가한 로씨야련방 공식대표단을 환영하는 만찬회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는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준공식에 참가한 로씨야련방 국가회의 의장 바체슬라브 월로진동지와 국방상 안드레이 벨로우소브 동지를 비롯한 로씨야련방 공식대표단을 환영하여 4월 26일 만찬을 마련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 김정은동지께서 만찬회에 참석하시었다. 로씨야련방 공식대표단 성원들과 우리나라 주재 로씨야련방대사관 립시대리대사 올라지미르 포베하동지, 국방무관 알렉세이 바르투소브동지, 대사관성원들이 만찬회에 초대

되었었다.

만찬회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주요간부들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만찬회에서 조용원동지가 로씨야련방 공식대표단을 환영하는 주요발언을 하였다.

만찬회는 시종 친선적이며 화기로운 분위기속에서 진행 되었었다.

조선인민군 해외작전부대 지휘관, 전투원들에게 로씨야연방 국가표창 수여



로씨야연방 대통령 정령에 따라 우크라이나신나치스세력의 군사적강점으로부터 로씨야연방의 령토를 해방하는데 특출한 공헌을 한 조선인민군 해외작전부대 지휘관, 전투원들에게 용감성훈장이 수여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이 조선인민군 특수 군사작전 참전렬사유가족들을 위한 위로연을 마련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각급 특수작전구분대들의 훈련실태를 료해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작전국직속 특수작전훈련기지를 방문하시고 각급 특수작전구분대들의 훈련실태를 료해하시였다.

훈련기지는 국가와 인민의 안녕수호를 위한 군력강화의 화선길을 쉬임없이 견고걸으시는 김정은동지께 최강의 전투력시위로 기쁨과 만족을 드릴 불같은 일념에 넘쳐있는 특수작전구분대 전투원들의 충천한 기세로 뚫어번지고 있었다.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상

노광철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리영길동지,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김성기동지를 비롯한 국방성 지휘부와 군종 및 대련합부대 군정지휘관들이 영접하였다.

이날 훈련에서는 각급 특수작전구분대 전투원들의 육체 및 군사적활동능력을 평가하였다.

우리 당의 훈련제일주의방침을 높이 받들고 어렵고 힘든 훈련길에 충성과 애국의 힘찬 발자욱을 찍어가며 무적의 전투력을 역세게 다져온 군종 및 각급 대련합부대 특수작전구분대들은 백발백중의 사격술과 군사기술적, 육체적능력을 경쟁적으로 남김없이 시위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군대의 각급은 평시에 훈련에서 땀을 많이 흘려야 전투에서 피를 적게 흘린다는 철리를 깊이 자각하고 주체적훈련혁명방침의 철저한 관철과 구현으로써 현대전쟁의 추이에 맞게 엄격히 준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앞으로 실시하게 될 우리 군대의 특수작전력량재편방향과 그에 따르는 대책적문제들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시였다.

이날 우수한 특수전구분대 전투원들의 위력시위 모범출연이 있었다.

모범출연에 참가한 군인들은 일당백무쇠주먹, 무적의 싸움군들로 역세게 준비해가는 자기들의 육체기술적능력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만만한 자신심에 넘쳐있는 녀성 특전대원들의 훈련모습도 기쁨속에 보아주시면서 따듯이 고무격려하시였다.

지도간부들은 싸우면 반드시 이기고 적을 무조건 피멸시킬 멸적의 투지와 영웅적기개가 그대로 맥박치는 훈련을 보면서 열렬한 박수와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공화국의 자주권과 인민의 안녕을



역척같이 수호해가는 우리 군대의 중추구성력량인 특수작전 무력의 절대적 위세와 무쌍한 용맹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 하시면서 미덥고 자랑스러운 군관, 병사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쟁수행의 직접적담당자이며 국가

방위의 기본력량인 우리 군대의 각급이 조국보위, 혁명보위, 인민보위의 성스러운 사명에 언제나와 같이 충실하며 우리 국가, 우리 위업의 승리적전진을 강력한 군사력으로 써 믿음직하게 담보해나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국방과학원 장갑무기연구소에서 조직한 시험을 참관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국방과학원 장갑무기연구소가 조직한 탱크능력평가시험을 참관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해당 시험이 우리의 신형주력탱크가 얼마만큼 우수한 탱크인가를 설명이 아닌 실제적행동으로 보여준 계기, 얼마만큼 신뢰할수 있는 전투수단인가를 잘 알게 해준 계기로 된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 진행된 시험을 통하여 우리의 신형주력탱크의 요격체계의 기능성은 현존하는 거의 모든 반탱크수단들에 대한 철저한 소멸능력을 완벽하게

갖추었다는것을 실증하였다고 말씀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놀라운 전투적성능을 파시한 신형주력탱크를 평하시면서 세계적으로 이 탱크와 견줄만한 탱크가 없다고 이미 천명한 우리의 견해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었다.

이날 진행된 신형주력탱크의 능동방호체계검열을 위한 여러 시험에서는 각이한 방향에서 공격하는 반탱크수단들에 대한 방호체계의 전투적효과성을 구체적으로 시험하였으며 100% 확률로 방어적기능의 완벽성이 확인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대출력탄소섬유고체발동기 지상분출시험을 참관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탄소섬유복합 재료를 리용한 대출력고체발동기 지상분출시험을 참관하시었다.

새로 갱신된 대출력고체발동기의 최대추진력은 2 500kN으로서 해당 시험은 전략적타격수단들의 부단한 갱신을 중요목표로 제시한 새로운 5개년기간의 국방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조춘룡동지가 동행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갱신된 발동기시험이 가지는 전략적 의의에 대하여 평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국가의 전략적군사력을 최강의 수준에 올려세우는데서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이 시험은 전략무력의 현대화에 관한 국가전략과 군사적수요조건에

충분히 만족된다고 언급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략무력건설에서 이미 중대한 변화 국면을 맞이한 우리의 국방력발전형세는 이번 시험과 같은 경제 및 기술적효과성이 우월하고 보다 우수한 구성 요소들의 개발과 도입성과에 의하여 더욱 변화, 가속되게 될것이라고 확언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국가전략무력의 질량적발전을 보다 적극화해나가기 위한 중요과업들에 대하여 언급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정식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사일총국장 장창하동지와 미사일총국, 미사일연구부문의 일군들, 고체발동기연구소와 미사일발동기생산공장을 비롯한 련관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일군들이 시험에 참가하였다.



구축함 《최현》호에서 무기체계시험들이 진행

조선인민군 해군 구축함 《최현》호에 대한 작전운영 평가시험체계안에서 전략순항미사일과 반함선미사일시험 발사가 4월 12일 또다시 진행되었다.

김정은동지께서 국방부문 지도간부들과 해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시험발사를 참관하시였다.

해당 시험발사는 함선의 무기통합지휘체계 발사조종 계통을 검열하고 해병들을 미사일화력복무동작에 숙달 시키는것과 함께 개량된 능동형반장애항법체계의 정확성과 목표명중성을 확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하였다.

구축함 《최현》호에서 전략순항미사일 2기와 반함선 미사일 3기가 시험발사되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날 새로 건조하는 구축함 3호, 4호함의 무기체계구성심의안을 보고받으시고 중요결론을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최근에 국방과학분야에서 이룩한 각이한 성과들로 하여 우리 군대의 전략적행동의 준비태세는 질적으로 강화되었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강력하고 신뢰할수 있는 핵전쟁 억제력을 끊임없이, 한계없이 확대강화하는것은 우리 당의 불변한 국가방위로선이며 최종대선결과업이라고 하시면서 핵전쟁억제력구성에서 기본으로 되는 전략 및 전술적공격 능력을 더욱 강화하고 신속대응태세를 제고하며 정교화 해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과업들을 밝히시였다.





발사된 전략순항미사일들은 7 869~7 920s간, 반함선미사일들은 1 960~1 973s간 조선서해 상공에 설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비행하여 목표를 초정밀명중정확도로 타격하였다.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포병구분대들사이의 포사격경기 진행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김정은**동지께서 4월 15일 태양절에 즈음하여 조직한 조선인민군 서부지구 대련합부대관하 포병구분대들사이의 포사격경기를 참관하시였다.

경기에서는 수도방어군단관하 포병구분대가 영예의 1등을 쟁취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에 즈음하여 진행된 포사격경기가 우리 포병들의 훈련열의를

고조시키고 전투적위력을 비상이 강화해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포병무력의 적극적인 활용은 작전과 전투 나아가서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는 앞으로도 당의 포병중시, 포병강화방침을 받들고 포병싸움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나아가야 한다는데 대하여서와 새로운 국방발전 5개년계획기간안에 포병무력현대화에 관한 당중앙의



전략적구상이 철저히 관철되어야 한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과 같이 국가적명절들을 비롯한 주요계기들에 군대 각급에서는 훈련경기들을 자주 조직하는것이 좋다고, 인민군대는 첫째도 둘째도 싸움준비 완성을 위한 훈련밖에 몰라야 한다고, 그것이 곧 위대한 수령님의 강군건설념원을 풀어드리는 길이고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 대한 충실성의 표현이며 군대의 본분이라고 말씀하시였다.

훈련경기에서 우승을 쟁취한 구분대에 상장과 메달과 휘장이 수여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날 우승한 해당 포병구분대 군인들을 만나시고 높은 전투력을 치하하시며 군관, 병사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였다.



136 km 계선의 섬목표를 중심으로 하여 설정된 표적지역으로 발사한 5기의 전술탄도미사일들은 12.5~13ha의 면적을 매우 높은 밀도로 강타하면서 전투적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미사일총국 전술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사일총국은 4월 19일 개량된 지상대지상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11라》형의 전투부위력평가를 위한 시험발사를 진행하였다.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시험을 참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인 김정식동지, 미사일총국장 장창하대장, 조선





인민군 제1군단장 안영환중장, 제2군단장 주성남중장, 제4군단장 정명남중장, 제5군단장 리정국중장이 참관하였다.

시험발사의 목적은 전술탄도미싸일에 적용하는 산포 전투부와 파편지뢰전투부의 특성과 위력을 확증하는데 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각이한 용도의 산포전투부들이 개발

도입되면서 우리 군대의 작전상수요를 보다 충분히, 효율적으로 만족시킬수 있게 되었다고, 고정밀타격능력과 함께 필요한 특정표적지역에 대한 고밀도진압타격능력을 증대시키는것은 군사행동실천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시험결과에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 우리가 터득하고 갱신한 기술과 기록은 미싸일전투부전문연구집단을 조직하고 5년이라는 시간을 바친것이 조금도 헛되지 않았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준 귀중한 결과물이라고 평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국방과학연구집단들이 우리 군대의

싸움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첨단기술력을 쟁취 및 고도화하기 위한 중대한 사업들에서 계속되는 성과들을 이룩하기 바란다고 격려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혁명군창건일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서부지구 기계화보병사단관하 연합부대를 축하방문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에 즈음하여 4월 25일 조선인민군 서부지구 기계화보병사단관하 연합부대를 축하방문하시고 장병들을 고무 격려하시었다.

영예로운 복무의 나날 오매에도 뉘고싶던 최고사령관동지를 우리 혁명무력이 자력의 총검을 억세게 추켜들고 력사적인

첫 보무를 내짚은 뜻깊은 날에 부대에 모시는 꿈만같은 영광을 지니게 된 장병들의 가슴가슴은 크나큰 감격과 환희로 격양되어있었다.

김정은동지께서 연합부대 지휘부에 도착하시자 전체 장병들은 무장으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과 그 즐기찬 전진이 최강의 군력으로 억척같이 담보되는 부국강병의 새 전기를 펼쳐나가는 강철의 령장을 우러러 최대의 경의를 담아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부대에 건립되어있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지도사적비에 꽃다발을 진정하시고 경의를 표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절세위인들의 거룩한 군령도업적을 전하는 사적비와 헌시비를 감회깊게 돌아보시고 혁명 사적관을 찾으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그 명칭도 성스러운 기계화집단과 관하부대들은 항일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굳건히 수호하는데서 전군의 앞장에 설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속에 조직된 영광의 대오라고 하시면서 오직 필승만을 떨친 항일빨찌산의 자랑찬 력사의 행적이 부대들의 명칭마다에 새겨져있다고 말씀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특히 당중앙결사옹위의 구호가 전군적



으로 선참으로 올려퍼지고 붉은기중대운동의 봉화가 타오른 력사의 고장에 련합부대가 자리잡고있다고 하시면서 바로 여기에서 우리 혁명무력의 사상적혈통고수, 사상적혈통 계승의 신념이 제일먼저 뿌리내렸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인들의 사상적정예화야말로 무적 필승의 보검이라는것이 우리 당의 불변한 강군건설리념 이고 전쟁관이라고 하시면서 자기의 혈통과 근본을 항시

자각하고있는 사상의 강군만이 그 어떤 대적도 단호히 제압 분쇄할수 있다고 확언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당군령도실록이 집성되어있는 련합부대의 특성과 지위에 맞게 군인들에 대한 정치사상사업과 싸움준비완성 에서도 전군의 본보기가 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과업들을 밝혀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창건일을 뜻깊게 맞이하는 려단의 전체 장병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고 건군사에 길이 남을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날 부대군인들과 함께 체육경기도 관람하시였다.

우리 혁명무력의 력사적뿌리가 내린 뜻깊은 날에 김정은동지를 부대에 모시는 최상의 영광과 대해같은 정을

받아안은 전체 장병들은 창군의 첫 세대들이 지녔던 성스러운 사명과 리념, 불굴의 전투정신을 굳건히 계승하여 조선인민군의 영광넘친 백승사를 더욱 빛내여갈 신념의 맹세를 다짐하였다.



뜻깊은 4.25명절에 즈음한 각급 대련합부대관하 박격포병들사이의 사격경기 진행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4돐을 맞으며 조선인민군 각급 대련합부대관하 경비병부대 박격포병들사이의 사격경기가 4월 25일에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경기를 참관 하시였다.

사격경기는 구분대들이 설정된 전술임무에 따라 신속히 자연 및 차단계선들을 극복하고 기동전개하여 각이한 목표

들을 정해진 시간내에 소멸한 다음 은폐리탈하는 전투조법을 관정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경기결과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국가와 혁명무력에 있어서 특별히 의의깊은 명절인 조선인민혁명군창건일을 싸움준비완성을 위한 자랑찬 훈련성가로 뜻깊게 기념한 포사격경기참가 구분대들과 전군의 장병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인사를 보내시면서 최근 군대의 각급에서 전투력강화를 위한 훈련혁명의



열기가 계속 고조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사격경기에서는 조선인민군 제11군단관하 련합부대 박격포병구분대가 영예의 1등을 쟁취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투훈련은 우리 당의 군사전략사상과 주체전법의 제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여 적을 완전히 괴멸

시킬수 있는 전투력을 백방으로 다지는데 중심을 두고 조직 진행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전군적으로 각급 부대별, 전문병구분대별 훈련경기를 보다 강도높이 경쟁적인 방법으로 전개하는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국방성중앙군악단창립 80돐기념 연주회를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4월 28일 국방성 중앙군악단창립 80돐기념 연주회를 관람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출연자들이 우리 군대의 혁명적성격과 전투적기백이 맥박치는 훌륭한 연주회를 진행한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고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군대의 빛나는 연혁속에는 세기와 년대를 이어 혁명군악으로 용감하고 영웅적인 군대를 고무하며 그 어떤 무장장비와도 대비할수 없는 거대한 위력을 발휘해온 국방성중앙군악단의 공적이 력력히 깃들여 있다고, 자신께서는 항상 예술단체로서가 아니라 혁명군대를 대표하는 군인집단으로서 군악단에 경의를 표시

하여왔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악소리가 높이 울리는 곳에서는 언제나 무적의 용맹이 나래치고 세기적인 변혁이 창조되는 격동의 화폭들이 펼쳐졌다고 하시면서 국방성중앙군악단은 우리 국가의 얼굴이고 조선인민군의 상징이라고 값높이 평가해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악단의 창작가, 연주자들은 당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과 높은 예술적기량을 지니고 혁명적인 군악으로 우리 군대의 진군을 고무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국방성중앙군악단이 가장 영예로운 사명에 변함없이 충실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며 전체 창작가, 연주자, 일군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장 왕의동지를 접견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4월 10일 우리 나라를 방문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장인 왕의동지를 접견

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왕의동지와 반갑게 상봉하시고 따뜻한 인사를 나누신 후 동지적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시었다. 석상에서 왕의동지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인 습근평동지가 김정은동지께 보내는 따뜻한 인사를 정중히 전해드리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하시고 습근평동지에게 보내는 자신의 인사를 전해줄것을 부탁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중량국이 공동의 리익수호와 쌍무관계의 다방면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여러급에서의 래왕과 접촉을 보다 심화시키며 호상지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것이 국제적인 현 지정학적형세와 전망적인 두 나라 전략적리익의 견지에서 중요하다는데 대해 언급하시고 호상 관심사로 되는 지역 및 국제정세문제들에 대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립장을 피력하시었다.

왕의동지는 지난해 9월 베이징에서 진행된 중조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사이의 상봉과 회담에서 이룩된 중요한 공동인식에 따라 새로운 발전국면을 맞이한 중조친선관계를 두 나라 인민들의 념원과 리익에 맞게 훌륭히 발전시키려는

중국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립장과 지역 및 국제문제들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사회주의를 핵으로 하는 조중친선관계를 가장 귀중히 하고 최우선적으로 중시하며 더욱 공고발전시켜나가려는것은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립장이라고 확인하시면서 우리 당과 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립각하여 나라의 령토완정을 실현하며 공평하고 정의로운 다극세계건설을 위한 중국당과 정부의 모든 대내외정책들을 전적으로 지지할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습근평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중국당과 정부와 인민이 사회주의현대화와 민족부흥의 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로정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기를 축원하시면서 왕의동지와 뜨거운 작별인사를 나누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14돐을 온 나라가 성대히 경축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일군들과 근로자들, 인민군장병들과 청소년학생들이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당과 정부의 간부들이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뜻깊은 4월의 봄명절을 맞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14돏경축 평양시청년학생들의 야회 및 축포발사를 비롯한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되었다.



위인칭송의 노래, 친선단결의 노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14돐을 맞으며 제34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한 세계 여러 나라의 예술인들은 열화같은 흥모심과 친선의 마음을 안고 축전무대에 위인송가들과 다양한 주제의 작품들을 펼치었다.



제34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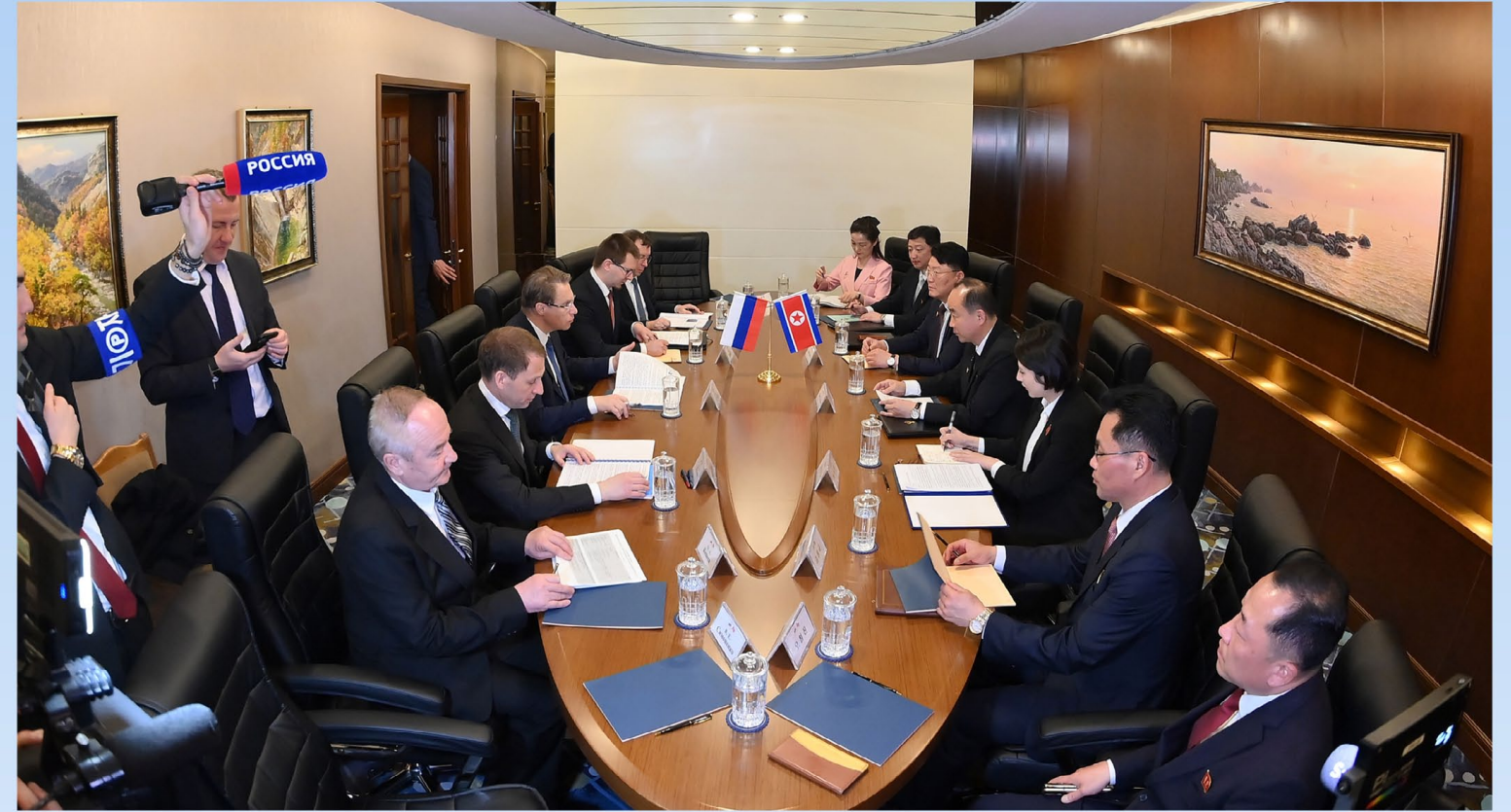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조로 두 나라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안전상과 러시아연방 내무상사이의 회담 진행



조로 두 나라사이의 교류와 협력강화를 위한 부문별 실무면담 진행



조로친선병원건설착공식 진행



조로국경자동차다리연결작업 진행



사회주의농촌에

더 많은 비료를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로동계급이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가 제시한 강령적 과업을 관철하기 위하여 비료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연합기업소에서는 단계별, 공정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데 기초하여 지난해보다 더 높은 비료생산목표를 내세우고 생산성과를 부단히 확대해 나가고있다.

암모니아직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설비조작과 운전을 기술규정과 표준 조작법의 요구대로 진행하면서 설비들의 정상가동을 보장하고있다.

선탄공급직장, 건조직장을 비롯한 비료생산의 선형공정을 지켜선 단위들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에서는 설비와 생산공정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최대로 보장하는 한편 합리적인 로조작 방법을 받아들이고 합성가스압축기들에 도입한 진동검사 보호체계의 효과성을 높여 비료생산에서 높은 생산실적을 내고있다.

에서는 무연탄소비기준을 극력 낮추면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 가치있는 새 기술과 작업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있다.

노소직장의 노동자, 기술자들도 창의 창발성을 적극 발휘하여 원단위소비 기준을 극력 낮춤으로써 매일 계획보다

많은 비료를 생산하고있다.

올해 농사에 필요한 비료를 제때에 생산보장할 열의를 안고 매일 높은 생산실적을 기록하고있는 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기세는 계속 고조 되고있다.

사진 리명국, 글 박경철





증산의 동음 울리는

천리마타일공장

굴지의 건재생산기지인 천리마 타일공장이 증산투쟁으로 들끓고 있다.

생산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가 실현된 공장에는 각종 타일들을 대량으로 생산해낼수 있는 튼튼한 물질기술적 토대가 그쯘히 구축되어있다.

공장에서는 조업후 지난 10여년간 생산능력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하지만 기존의 능력으로는 늘어나는 타일수요를 원만히 보장

할수 없었다.

그 해결책을 인재중시, 과학기술중시에서 찾은 공장일군들은 종업원들속에서 기술, 기능, 경영인재들을 선발하여 적재적소에 등용배치하는것과 함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완강하게 집행해나갔다.

특히 능력이 큰 현대적인 생산공정을 꾸리는 사업을 단계별로 정하고 인재들이 주도적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한편 공장에서는 정쟁한 실력가들로 무어진 공업시험소의 기술자들에게 현행생산과 전망생산에 필요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맡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종업원들 전체가 이 사업에 참가하도록 하였다.

결과 비등식열풍로를 비롯하여 소성공정과 시유공정, 원료가공공정에 많은 설비들이 우리 식으로 창안도입되었으며 연료와 유약, 타일원료 등 여러 원자재들도 국내원료로 만들어

공장에서는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하여 경영관리와 생산활동의 최량화, 최적화를 실현함으로써 생산능력과 제품의 질을 높이고있다.





내는데 성공하게 되었다.

하여 공장의 타일생산량은 종전에 비해 2배이상 장성하였으며 새 제품 개발과 질제고사업에서도 큰걸음을 내짚게 되었다.

오늘 공장에서 생산한 타일제품들은 전국적인 과학기술축전과 마감건재 부분의 전람회들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있다.

지금 공장에서는 지난해보다 더

높은 타일 생산 목표를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해 힘차게 매진하고있다.

사진 최원철, 글 강진성



공장에서는 제품의 질제고를 위한 사업을 부단히 심화시키면서 전국각지의 대건설장들에 필요한 타일을 제때에 생산보장하고있다.



서북변의 농장도시 신의주온실종합농장

조국의 서북변 위화도지구에 신의주 온실종합농장과 신의주남새과학연구 중심이 웅장하게 일떠섰다.

년년이 들이닥치는 큰물로 하여 불모의 땅으로 취급되던 섬지구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지방경제의 급진적인 발전과

지역인민들의 물질생활향상을 주도 할수 있는 점으로 전변되었다.

신의주온실종합농장은 지난 시기 우리나라에 건설된 온실농장들에 비해 현대성과 선진성, 실리성에 있어서나 건축 수준에 있어서 또 한단계 도약한 초유의 대온실군, 리상적인 농장도시이다.

450정보의 면적에 천수백동의 각이한 류형의 현대적인 온실호동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신의주온실종합농장은 최근년간 건설한 대규모온실농장들을 다 합친것보다 규모가 더 방대하다.

온실형식도 작물과 경제적실리에 따라 반궁륭식2중박막수경온실, 궁륭





신의주온실종합농장에서는 작물들의 품종별생육조건에 맞게 온습도조절과 영양관리 등을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여 도마도, 고추, 오이, 배추 등 갖가지 남새들을 생산하고있다.

련결식박막토양온실, 량경사면련결식 유리수경온실, 량경사면련결식유리토양 온실, 반구형유리수경온실 등 각이하다. 주목을 끄는것은 량경사면련결식유리

수경온실이다.

이 온실은 넓은 면적의 재배장에 대한 자동조종을 실현할수 있어 남새재배를 과학화, 집약화, 공업화하는데 유리하다.

반구형유리수경온실들에는 각각 수직 회전식다층남새재배장치, 수직흐름식 다층남새재배장치, 레드등을 리용한 수평 판식다층남새재배장치가 설비되어있다.



신의주남새과학연구중심에서는 온실남새생산의 과학화, 집약화, 공업화를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남새재배와 양어, 남새재배와 버섯 재배를 겸한 태양열온실 등은 이곳 남새 온실지구의 특색을 부각시키고있다.

지능형통합생산체계가 구축된 신의주 온실종합농장에서는 생산조직의 정보화, 과학화, 재배기술관리의 최량화, 최적화를 실현하여 최대한 실리를 보장하고 있다.

위화도지구에는 천수백동의 온실호동들과 신의주남새과학연구중심, 문화주력들, 다양한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이 조화롭게 배치되어있다.

또한 남새온실운영과 관련한 지열난방보장체계, 영양액공급장 및 비료제조장, 탄산가스생산장 등도 그쯘히 꾸려져 있다.

신의주온실종합농장에서 생산한 도마도, 고추, 오이, 배추 등 열매남새와 잎남새, 기능성남새들이 신의주시안의 주민들에게 공급되고있다.

사진 라평렬, 리철진
글 강진성





산림연구원의 연구사들은 나라의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들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바쳐가고있다.

지난 1월 수도 평양에 모든 조건이 그뿐하게 갖추어진 산림연구원이 일떠섬으로써 산림조성사업을 과학적 토대우에서 보다 힘있게 진척시킬수 있는 또 하나의 토대가 마련되였다.

연구원에는 수십개의 연구실들과 실험실들, 편의봉사시설, 보조건물들이 있다.

여러가지 산열매가공품들을 연구 개발할수 있는 중간시험공장과 나무 모들을 재배할수 있는 온실들, 산림 과학기술연구와 관련한 자료기지가 구축된 도서열람실도 꾸려져있다.

산림연구원의 연구사들은 나라의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들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이룩하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바쳐가고있다.

지금 이곳의 연구사들은 산림조성, 산림보호관리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연구사업의 중심을 두고



나라의

산림과학연구거점

- 산림연구원을 찾아서 -



높은 과학기술성으로 광과 인민의 기대에 보답하자!

산림연구원

산림연구원



산림연구원의 일군들과 연구사들은 산림조성, 산림보호관리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연구사업의 중심을 두고있다.



우리 나라의 기후풍토에 맞는 나무들을 더 많이 육종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함께 새로운 나무심기방법을 연구 완성해나가고있다.
그리고 우리 당의 지방발전정책을

받들고 시, 군들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기름나무림과 종이원료림조성을 위한 과학기술적대책을 세우며 여러 가지 산열매가공품에 대한 연구사업을 심화시켜나가고있다.

뿐만아니라 과학기술정보사업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선진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며 널리 보급하기 위한 사업도 활발히 진행하고있다.

사진 라평렬, 글 김선경





새 거리의 사랑많은 유치원

화성구역 금릉1유치원은 지금으로부터 3년전 화성거리의 준공과 함께 개원되었다.

양지바른 곳에 위치한 유치원에는 교양실들과 지능놀이실, 무용실, 유희실, 물놀이장 등이 그쯘히 갖추어져있다.

유치원에서는 여러가지 놀이를 통한 교육방법을 적용하여 어린이들이 배운 내용을 원리적으로 쉽게 이해하도록

하고있다.

이와 함께 어린이들의 나이와 심리적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을 제공해주기 위해 부단히 탐구하고 실천해나가고 있다.

교양원들은 복도에 수집점의 직관물들을 게시한것을 비롯하여 유치원의 모든 공간이 그대로 하나의 교육교양 마당으로 되게 하였다.





어린이들의 천성적소질과 재능의
 싹을 적극 찾아내고 꽃피워주는데도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는 이곳 교양원들
 이다.
 그들의 노력에 의하여 유치원에는
 나어린 재간둥이들이 날을 따라 늘어
 나고있다.
 지난해에만도 이 유치원의 남대권
 어린이가 평양시적으로 진행된 어린이
 바둑경기에서 우승하였으며 유치원
 어린이들의 예술축전무대에서는 김대권

어린이가 노래를 잘 불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오늘도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훌륭히
 키우려는 화성구역 금릉1유치원
 교양원들의 노력은 계속되고있다.

사진 황정혁, 글 김선경



© 조선화보사 2026
화보 《조선》은 인터넷 《조선의 출판물》
홈페이지에 조선어, 중국어, 로어, 영어, 프랑스어,
에스빠냐어로 게재됩니다.
주소: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전자우편(E-mail): flph@star-co.net.kp



7-26088050675